뚜벅

뚜벅

분명 사람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옳소. 전번 순찰때는 없었는데…

분대장동지, 흔적이 있습니다.

풀대가 꺾어진 방향을 보면 누구인가 국경을 넘어 침입한 것 갈소.
빨리 정황을 보고해 야겠소.

수리개, 수리개. 나 비둘기. 2호지점에서 국경침입자의 흔적을 발견했다. 국경침입자의 흔적을 발견했다.

경보
나 수리개, 알았다.
대상물을 추적하라.
기동조는 곧 출발하라.
직일

나 비둘기.
알았다.

앞으롯!

저벅
저벅
?

헉
헉

분대장동지,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흥, 멀리 가진 못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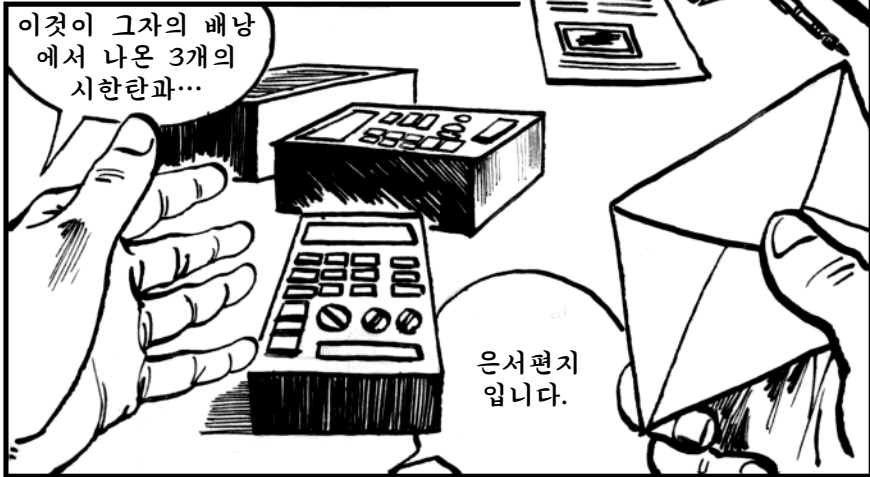
서각
서지 않으면 쏜다!
땅
뽕
뽕

에익
뽕
뽕
따루룩
악
분대장동지,
맞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수리개, 수리개.
나 비둘기.
정황을 보고한다.…

나 수리개, 알았다. 비둘기 들으라. …

사 무 실
오늘 새벽 3시경에 정체 불명의 사나이가 우리측지역으로 불법침입하다가…
현 철
우리 경비대원들의 총에 맞아죽었습니다.
이것이 그자의 배낭에서 나온 3개의 시한탄과…
은서편지 입니다.

편지내용은?
감정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쏘가리>앞. 안개작전검토를 위해 검열관을 파견한다. <검은 상어>.》
음… 의견들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과 장

《쏘가리》는 10년전 청계언제폭파사건 당시 적발된 간첩망의 망책대호입니다.
덕 만
준 호
그때 《쏘가리》간첩망은 타진되였으나 망책만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10년동안 꼬리를 사렸던 《쏘가리》에게 비밀지령이 떨어졌다?…
만약 《쏘가리》가 움직인다면 이번 기회에 그놈을 잡아낼수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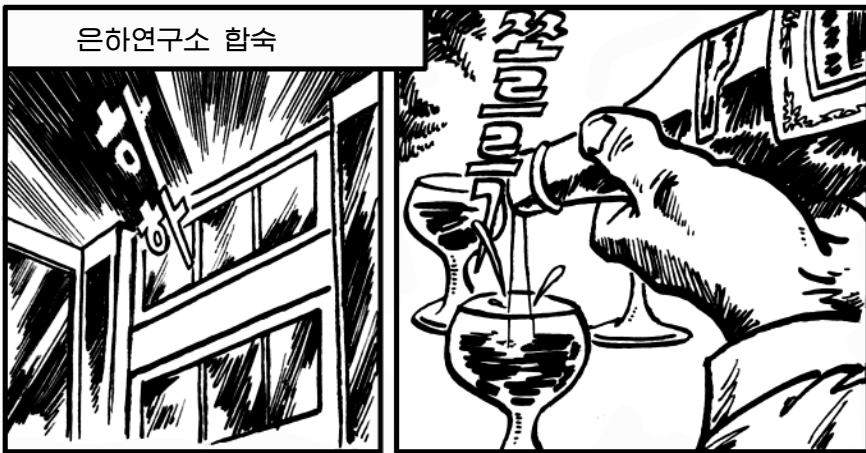
나도 같은 의견이요.
그런데 《안개작전》이
라는 미지수가 문제요.
안개작전

은하연구소 합숙
쫄르르

호실장 진국
동무들, 책임연구사 림호성동무의 생일을 축하하여 축배를 들자구.

축배

호성이, 주인공은 동무인데 왜 그러구 있나?

얼굴색이 좋지 않구만.

동무들, 고맙네. 어떻게 감사의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책임연구사 림호성
하지만 즐거운 이자리에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윤식이가 없는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려서…

참, 윤식이가 왜 오지 않았나?

영애동무, 그 친구 어데 갔어?

윤식동무가 호성동무하구 다투었다는걸 몰라요?

야!
며칠전 회의에서 호성이가 윤식
이를 되게 비판한것때문에?

그래요.
그 일로
윤식동무가
무척
괴로와해요.

엉? 그런 일이 있었어?

이 순간 호성은 자기가 윤식이를 비판한것이 정녕 친구사이에 너무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보고 있었다.
윤식동무는 사상적으로 변질되였습니다.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지 않고 허튼 생각에 골몰하군 합니다.
도대체 뭘 생각 합니까?

동무는 연구과제는 안중에 없이 개인적인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랑비하고있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한 우리 과학자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날 저녁
호성이!

자네 정말 너무하구만.

윤식이, 우린 연구사업을 하는 과학자야. 저 하나밖에 모르는 너절한 인간이 되여선 안돼. 난 친구로서 자네가 그런 길에 들어서는걸 보고만 있을수 없어.

뭐,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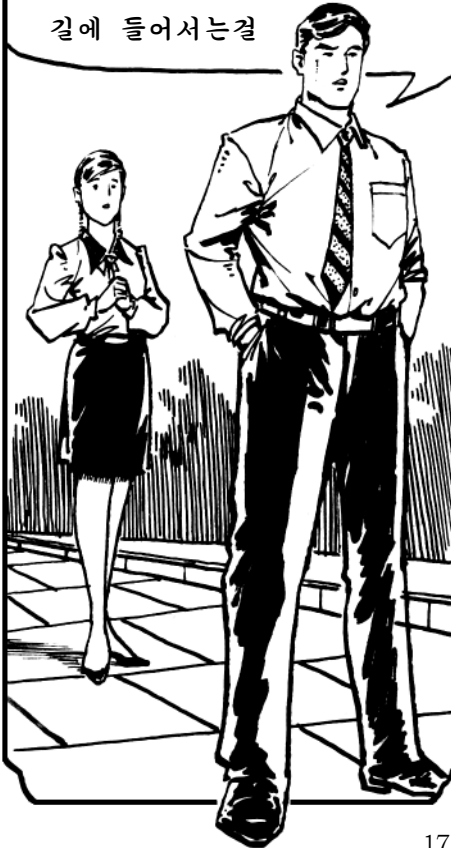
흥! 친구라는게 사람들앞에서 날 그렇게 망신 시킨단 말이야?
널 위해서 그렇게 한거야.
똑똑히 알아둬. 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더한 비판두 마다하지 않을테다.
뭐, 정말이야?

윤식동무, 그만해요.
이게 무슨 짓이예요?
쾅
에익!
내 말했지. 이 일이 공개
되면 난 끌장이라구.

아, 내가 너같은걸 친구
라구 믿다니…

야!

아니, 난 널 버릴수 없어.
절대로 그냥 보구만 있을수
없단 말이야.

윤식이, 지금 어디에 있어?
호성이, 그렇게 심각해하니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나.
아, 미안하네. 다들 마음껏 들면서 노래를 부르자구.
내가 기타반주를 하겠어요.
인생이 가는 길 머나먼 길에
청춘은 금같이 값비싼 시절…

순결한 심장이
꽃을 피울 때
청춘은 한생을
대신도 하지
청춘 청춘을
빛나게 살자
청춘 청춘을
값있게 살자
드르릉
둥둥
한생에 다시 없을 황금의 시절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호성동무와 그의 가장 가까운 길동무인 영애동무와의 혼성 2중창!
좋습니다!
영애동무, 실험실 연구사인 동무의 적극적인 방조가 없었더라면…
호성동무가 특수 합금강연구에서 어떻게 성공의 문어구에 들어설 수 있었겠소.

옳소. 과학탐구의 길에서 맺어
진 참다운 사랑, 이것은 우리
은하연구소의 자랑이란 말이요.
옳소!
사랑은 동지의 사랑은
남모르게 바치는 마음
서로의 마음에 깃들어
불길처럼 뜨거운 마음…
… …
… …

기쁨도 아픔도 함께 나눌 때
그 마음 나에게 속삭인다네
아- 귀중한 동지
꽝

사고다!
어디야?
수직갱쪽이야.
빨리 가보자구.

창고에서 폭약
이 폭발했어.

뭐? 폭약이?!

호성동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폭약창고가 폭발하면서
윤식동무가… 윤식동무가…

윤식이가 어떻게 됐다는거요?
저…

윤식동무가 잘못됐대요.

윤식이가 죽다니?
그럴수 없어!

그럴수 없단 말이요!

빵 빵

?

내 시인민위원회 담당부위원장이요.

사고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오는 길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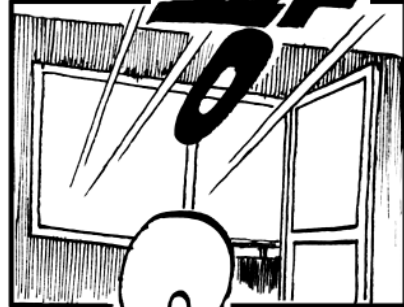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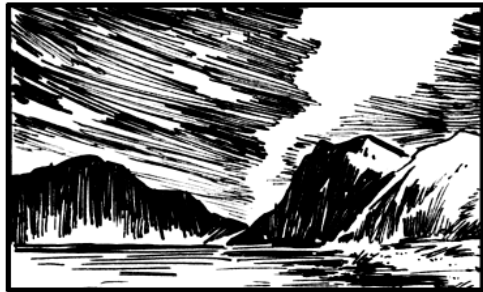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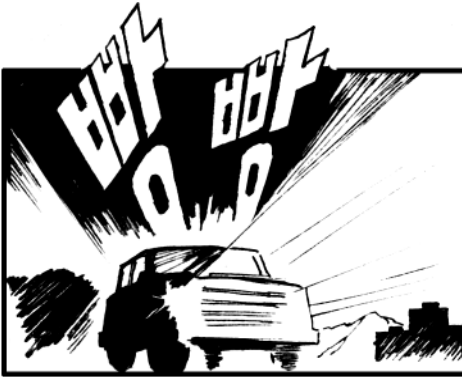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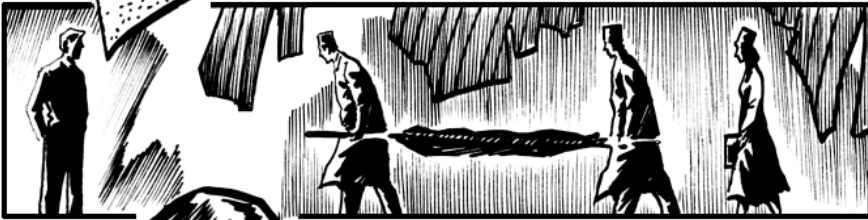
소장동지, 담당부위원장동지가 오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동지!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사고에 대해 해당 기관에 알렸소?
예.
지금 현장조사 중입니다.

나도 현장을 봐야겠소.
그리로 갑시다.

음!

저, 현장에서 발견된 연구사 오윤식동무의 시체입니다.

부소장동무, 이 동무가 어떻게 되여 사고현장에 있게 되였소?
그건 알수 없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합금강 연구에 필요한 합금원소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여기에 수직갱을 뚫고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폭약을 이 창고안에 보관했는데 수직갱건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윤식동무가 무엇때문에 여기에 왔댔는지 리해되지 않습니다.

윤식동무가 수직갱공사에 동원된 일은 없었소?
없었습니다. 수직갱공사는 제가 책임지고 로동자들로 조직했기때문에…
연구사들은 공사에 참가하지 않게 되여 있습니다.
윤식동무가 오늘저녁에 뭘했는지 모르겠소?
윤식동무는 호성동무와 합숙 한호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오늘이 호성동무의 생일이여서 함께 일하는 동무들은 모두 모였댔는데 윤식동무만은 웬일인지 그자리에 없었답니다.

윤식동무의 최근 생활에서 제기된 문제는 없었소?

원래 윤식동무와 호성동무는 대학시절에도 그랬지만 연구소에 온 뒤에도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호성동무를 만나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수 있을겁니다.

음… 친구의 생일에도 가지 않았다?…

동무가 윤식동무와 제일 가까운 사이였다는게 사실이요?
예.
윤식동무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알아볼 문제가 있는데…
저… 그 동무가 자살했다는것이 확실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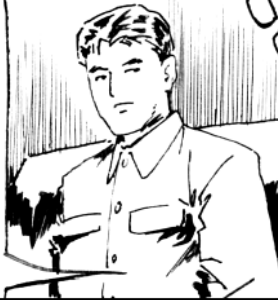
그렇소. 현장조사결과
와 법의감정결과가 그걸
증명해주고있소.
그렇다면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제가 살
인자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제가 너무했습니다. 윤식이는
나에게 자기 일이 공개되면 끌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보오.

나와 윤식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은하연구소에 배치된것은 3년전이였습니다. 우리는 합숙 한호실에서 생활하면서 합금강연구에 달라붙었습니다.
대학때부터 수재로 소문났던 윤식동무는 연구의 첫 공정에서 벌써 비상한 재능을 보여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난 그의 연구성과를 내 일처럼 기뻐해주었고 진심으로 축하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여서 호실에서 쉬고있었는데 윤식이가 나보구 영화구경을 가자는것이였습니다.

그때 나는 윤식이와 함께 가고싶었지만 합금강 연구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할 계획이였으므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윤식이는 그날 밤늦게야 호실에 돌아왔는데 술에 푹 취해있었습니다.

삐까삐까…
번쩍번쩍…
정말 희한해.

무슨 소릴 하는거야?
뭐가 삐까삐까 하구 뭐가 번쩍
번쩍 한다는거야?

최신식전자제품 일식,
최신식가구 일식, 고급료
리, 승용차… 없는게 없
더라니까.

난 윤식이에게 몇번 이나 물어서야 그가 영화관에서 한고향사 람을 만나…
그의 집에 갔댔 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영화소개

너 윤식이 맞지? 나야! 날 모르겠어?
아?! 박철형님 이 아니 시오?

그새 잘 있었나?
이게 몇해 만입니까? 정말 반갑구만요.

예, 은하연구소에서 일합니다.
자네가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에 배치되였다는 소리는 들었댔네.

그런데 형님이 여기에 어떻게?…

내가 여기로 이사온지 벌써 두해째야.
그래요?

아주머니랑 아이들은 잘있어요?

그럼, 가끔 윤식이 자네얘기랑
하군 한다네.

형님은 운전사요?
아니, 이건
내 차야.

내 차라는건?

난 지금 진평회사
부사장이야.

그러니 내 차나 갈지.
그래요?…

참,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러구 있겠나?

차에 타라구.
집에 가서 한잔 하세.

딸깍
가볼가?

윙
자, 들어가자구.
이게 우리 집이야.

집이 좋구만요.

형님은 정말
잘 사는군요.

시장하
겠는데
어서 드
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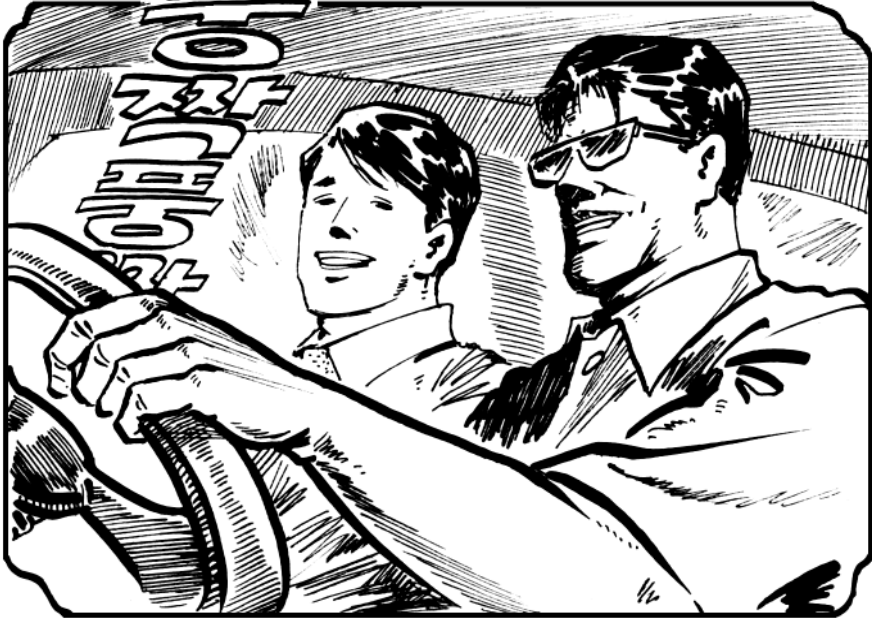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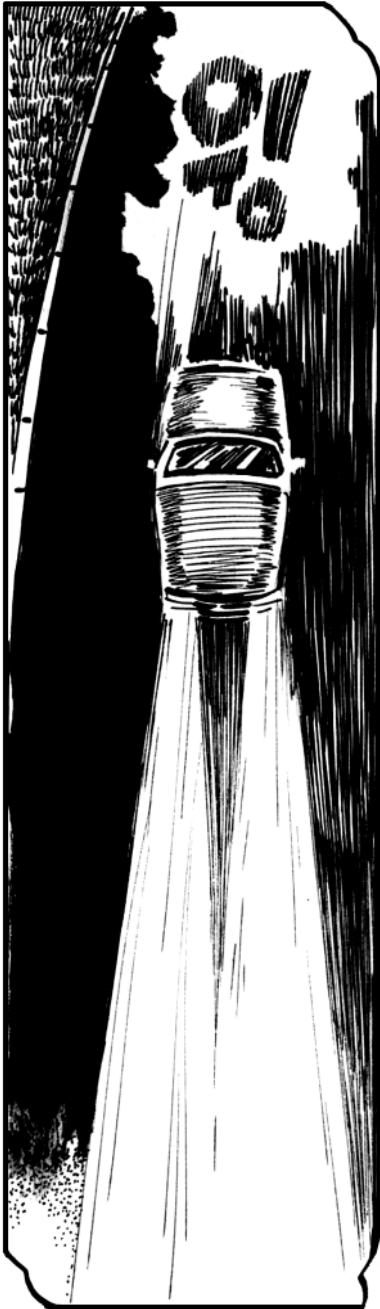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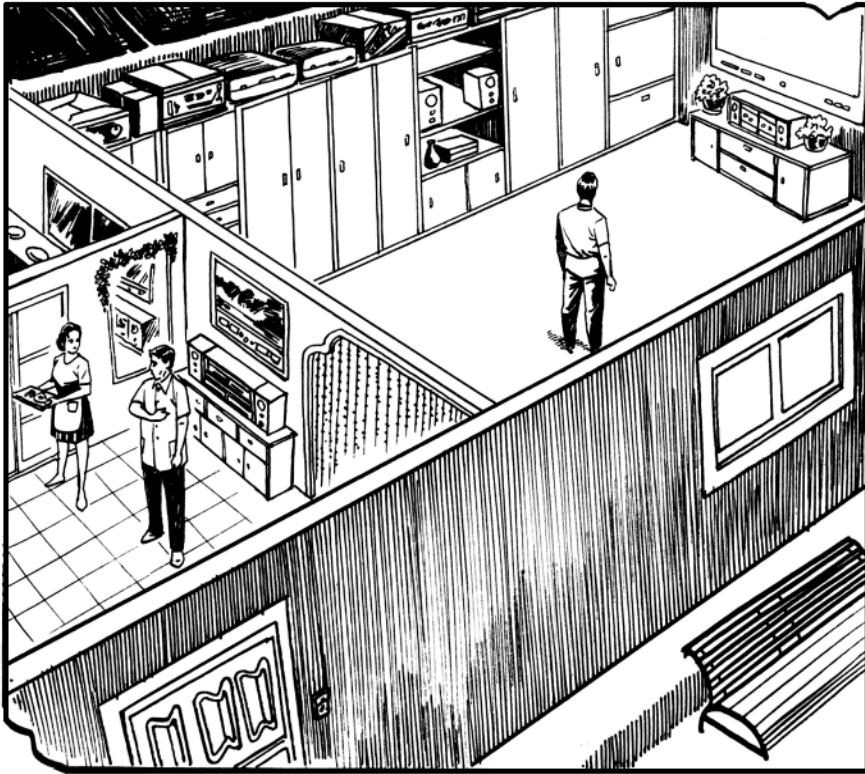
자, 어서 나앉게.

들자구, 상봉을 축하해서.

쨍 강

형님네 집은 말그대로 상품 전시장이군요.

그저 그렇지 뭐.

형님은 재간이 좋구만요.

재간이야 뭘. 무역 사업이란 두 바늘끌을 맞추는것과 같다는 말 못들었나?
좀처럼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두 형님은 성공하지 않았소.
그날부터 윤식이의 생활에서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구에 집중하지 않구 무엇인가 딴 생각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뭐, 그쯤하세나. 자, 들자구.

그러던 어느날
이였습니다.
윤식이!
윤식동무!
호성이,
자넨가?
무슨 책을 그렇
게 보고있나?
응, 그저 심
심풀이루 좀…

수입 대 지출? 이건 무슨 계산들인가?
수입
지출
아… 아무것도 아닐세.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윤식이가 피하는 바람에 더 캐여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많은 돈을 꾸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자 버쩍 의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에게 돈에 환장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비렬한 인간이 되고만다고 일깨워주었지만 이미 돈과 물건에 현혹된 윤식이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끝내 일이 터지고야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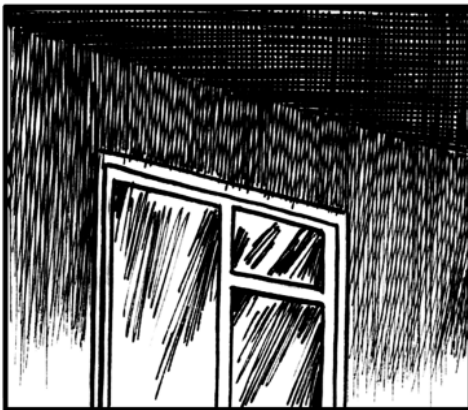
망하다니? 그건 무슨 말인가?
어떤 놈이 자기에게 판로가 있다면서 유혹하기에 그 많은 물건을 말겼댔는데 그놈이 없어졌어!
신분도 명확치 않은 사람과 뭘 어쨌다는 거야?
무서운 협잡군, 그놈을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아, 이제 그 많은 돈
을 무슨 수로 메꾼다?
할수 없지.
큰돈이 될수
있는것을 찾아
쥐는수밖에.
뭐라구?
너 제정신이야?

윤식이, 왜 그래? 정신차리라구! 과학연구사업을 뒤전에 미루고 돈에 눈이 어두워 헤덤비다니? 그러다 국가의 법까지 어기게 되면 자네는 법적제재를 받아야 하네.
뭐라구?
호성이, 이 일을 아는척 말게. 제발 비밀을 지켜주게. 응?
나는 그날밤 도저히 잠을 이룰수 없었습니다. 윤식이가 구렁텅이에 빠지는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회의에서 그의 결함을 까밝혀 비판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번져질줄이야… 제가 일을 잘못 처리했습니다.

그날밤

영애, 있니?
똑똑

아이,
송숙언니
예요?
어서 들어와요.
밤두 깊었는데 자지 않구 뭘하니?
실험수치들을 계산
해보구있어요.
넌 그저 일밖에 모르는
구나.

언니, 어떻게 왔어요?
이걸 연구소 소장선생한테 좀 전해줘. 소장선생이 부탁한거야.

언닌 소장 선생님과 무척 친한 사이인게 지요? 이런 부탁을 다 하구…
그럼, 이런 부탁을 자주 한단다. 참, 전번 사고문제는 어떻게 됐니?

윤식동무의 자살원인을 조사하고있어요.
그래?…
호성동문 글쎄 제발로 찾아가…
저때문에 윤식동무가 자살했을거라고 말했더군요.
뭐? 그게 정말이야?

사 무 실
자, 의견들을 말해보오.

누구인가가 폭약 창고문을 까고 들어갔는데 발견된 망치자루에서는 윤식의 지문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그가 자살을 목적으로 문을 까고 들어가…

폭약에 불을 달았다고 추측 됩니다.

그렇다면 동기는?

윤식동무는 많은 빚을 지고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
비판을 받게 되자 타락하고 절망한것 같습니다.

법의감정결과는 뭐요?

이것은 윤식이가 어제밤 폭약창고에 나타나기 전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위와 장안에서 많은 량의 알콜이 추출되였습니다.

과장동지, 전 의견을 달리합니다.
말해보오.

전 윤식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첫째로, 윤식은 머리뒤통수에 강한 타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물론 폭파시 날아오는 파편쪼각에 맞았을수 있겠지만 법의감정에서는 날카로운 물체가 아니라 어떤 둔한 물체에 얻어맞은 흔적이 있는데 이 흔적은 창고가 폭파되기 전에 생긴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까부신것으로 추측되는 이 망치에 맞아죽은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그 망치자루에는 윤식의 지문이 찍혀있다고 하지 않았소?

범죄자가 그의 지문이 찍힌 망치를 리용하여 살인을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 있지. 두번째 근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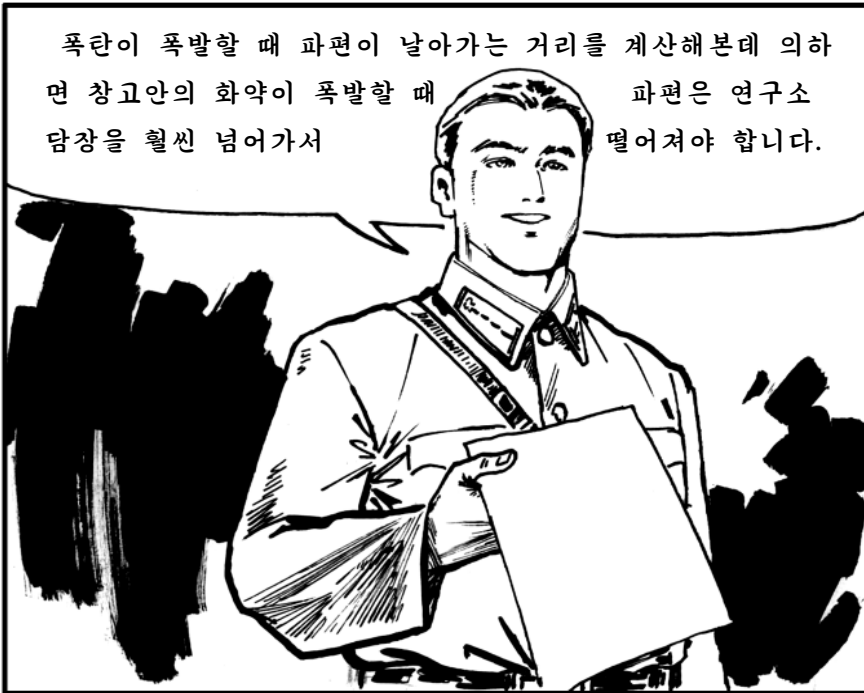
둘째로, 저는 시체조사과정에 팔목단추에 끼여있는 한오리의 머리카락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결과 이 머리카락은
젊은 녀자의것이였습니다.

그럼 범죄자가
녀자란 말인가?

단 한번의 타격으로
죽은것만큼 저도 처음
엔 범인이 남자일것이
라고 생각했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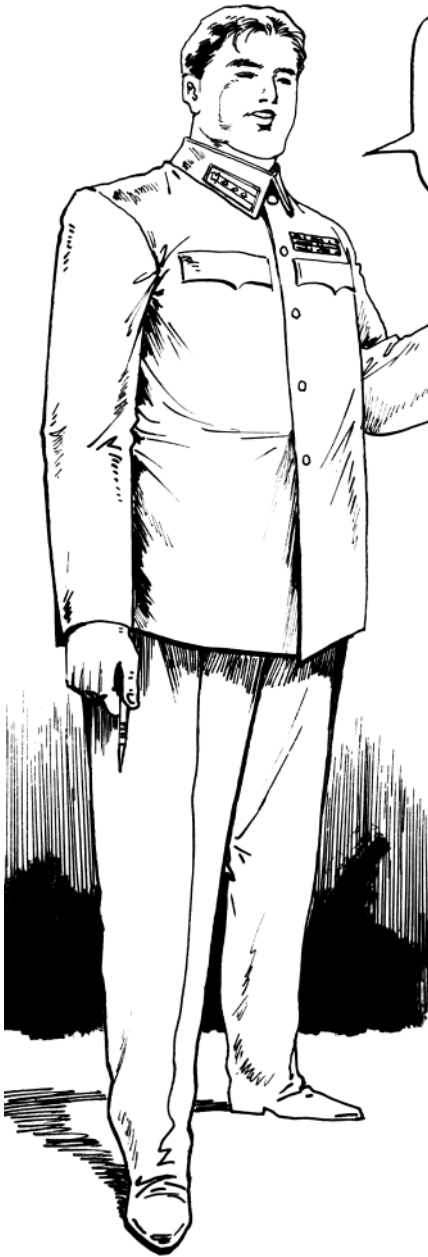
젊은 녀자가
망치로 남자의
뒤통수를 까서
죽였다는거요?

하지만 목적의식적인 살인인 경우에는 녀자도 례외로 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창고안에 있던 폭약량에 비해 폭파반경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폭파반경?

폭탄이 폭발할 때 파편이 날아가는 거리를 계산해본데 의하면 창고안의 화약이 폭발할 때 파편은 연구소 담장을 훨씬 넘어가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파편들은 모두 담장안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범죄자가 그 어떤 목적으로 폭약을 훔쳐낸 다음 그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적은 량의 폭약을 폭파시켰다는것을 말해줍니다.
나도 현철동무의 의견에 동감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소. 우리는 지금 10년전에 자취를 감추었던 음흉하고 교활한 《쏘가리》놈과 다시 맞다들었다는걸 알아야 하오.

쏘가리?

다 아는바와 같이 얼마전에 북부국경지대에 침입했던 《쏘가리》 간첩망의 검열관이라는자가 우리 경비대원들의 총에 맞아죽는 사건이 있었소.
침입자는 매우 강한 폭발력을 가진 세개의 시한탄을 가지고있었소.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후 은하연구소에서 폭약폭파사건이 일어났는데 현철동무가 추리한바와 같이 이 폭파사건의 진짜목적은 많은 량의 폭약을 훔쳐내자는데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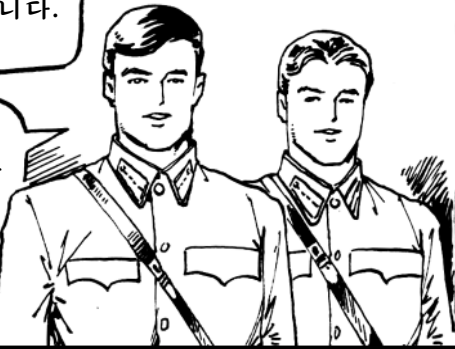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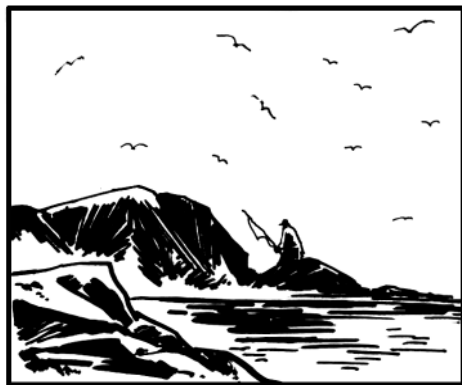
첫째로, 놈들의 《안개작전》에 폭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것.

셋째로, 이미전부터 《쏘가리》의 졸개들이 윤식이를 노리고있다가 수사를 혼란시키기 위해 그를 살해하였다는것. 이상 세가지요.
준호동무, 이런 정황에 대처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소?
폭파사건의 진상을 다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만동무의 의견은?

의도적인 살인사건이 분명한것만큼 윤식이와 련관되여있는 인물들을 파헤치면 단서가 잡힐것 같습니다.
현철동무의 생각은?
발견된 머리카락의 임자인 젊은 녀자만 찾아내면 그 선을 따라서 《쏘가리》에게 육박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음… 모두 옳게 말했소.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소.

우리는 반드시 은하연구소의 폭파사건을 윤식의 자살사건으로 덮어 버려야 하오.
예?…

《쏘가리》는 아주 음흉하고 로련한 놈이요. 만약 자살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는걸 알게 되면 그놈은 위험을 느끼고 꼬리를 사릴수 있소. 이렇게 되면 그놈이 더 깊숙이 들어박히게 되는것은 물론 적들의 《안개작전》내막도 영영 흑막속에 묻혀 버리게 되오.
이렇게 합시다. 현철동무.
준호동무와 덕만동무도 현철동무를 방조하되 절대로 현철동무가 로출되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해야겠소.
예!
동무는 이제부터 망책《쏘가리》를 놀래우지 말고 은밀한 방법으로 그놈이 노리는 목적 즉 《안개작전》의 내막을 시급히 알아내야겠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딸깍
《쏘가리》앞.
폭파사고는 윤식이
의 자살행위로 인
정되고있음.
《날치》
음!…

연 구 소
내 이미전에도 몇번이나 강조했지만…
우리는 올해안에 특수설비제작에 필요한 모든 연구과제를 전부 끝내야 하오.

그 의의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소.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시위하는것은 물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이른바 고립압살책동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된단 말이요.

부소장선생!

특수합금강문제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있소?
마감단계입니다.
이제 수직갱에서 필요한 미량원소광물만 채취하면 해결될것 같습니다.
행정부소장동무, 수직갱공사가 왜 늦어지오?
제가 이미 여러번 제기했지만 유능한 발파공들이 부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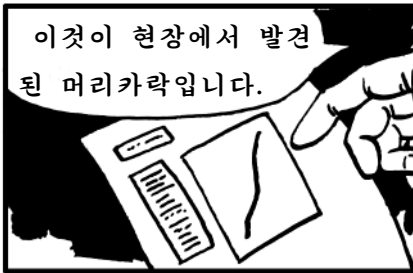
그 문제는 걱정마오. 내 상급과 토론해서 광산에서 제일 유능한 발파공들을 데려오기로 했소.
그럼 됐습니다.
사무실
과장동지, 현철동무가 머리카락의 임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렇소? 어디 보기요.

이것이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구 이건 연구소에서 수집한 머리카락인데…

범죄현장에서 발견된것과 꼭 같은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의 임자는 누구요?

자재과의 회계원 겸 창고장인
은옥이라는 처녀입니다.
음, 그렇단 말이지.
중요한 단서요.
동무는 수사를 어떤 각도에서
진척시킬 생각이요?

사건당시 은옥이의 현장부재증명을 해보면 모든것이 명백히 밝혀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안되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윤식이의 자살을 의심한다는것이 로출될수 있소.
빠르르
그러니 우선 은옥이와 윤식이와의 관계, 은옥이의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알아보오.

제 과장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내 곧 가겠습니다.

연구소에서 긴급히 협의할 문제가 있다니 가봐야겠소.

현철동무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란다고 이르오. 우리 일에서 조급성은 금물이요.
알았습니다.

연 구 소
안녕하십니까.
소장선생.

아, 과장동지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안됐습니다.

직접 만나 토론할 문제이
기에…
폭파사고와
관련된겁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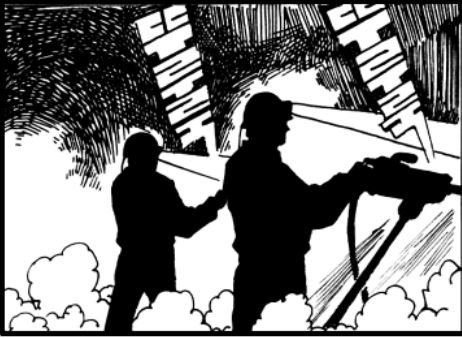
아, 아,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청년과학자토론회에요?

다름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에
서 열리는 세계청년과학자토론
회에 호성동무가 참가하게 되
였습니다.

조선민항

금속학연구에서의 나노기술응용과 관련한 호성의 토론은 참가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과학자들이 호성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하연구소 수직갱공사장
부소장동지, 광산에서 오는 발파공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렇소? 지금 어디 있소?
휴계실에 있습니다.

좋소. 동무는 얼른 가서 자재과장동무를 휴계실로 보내오.
예.
휴-
이젠 숨이 나가게 됐군.
일정계
휴계실
동무들, 오느라 수고들 했소.

내 연구소 부소장이요. 함께 손잡구 일해보기요. 누가 책임자요?
제가 책임지고 왔수다.
이름이 뭐요?
그저 순보아바이라구 불러주시우다.
아바이라구 하기엔 지내 젊구만.

부소장동지, 찾았습니까?
과장동무, 광산에서 온 이 발파공동무들에게 새 작업복과 안전모자를 공급해줘야겠소.
그리구 후방부에 이 동무들의 침실과 식사를 준비하라고 일러주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같이 갑시다.

그날밤

왜 날 만나자고 했어요?
조용히 할 말이 있어.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만나두 되겠는데 왜 이런 외딴데서…
거긴 사람들의 눈이 많아서 그래.

자, 받아.

얼마예요?

원금그대로야.

윤식이가
꿔주었댔다
는 돈은 안
줘요?
이번에 돈쓸 일이 있어
그러니 좀 더 기다려.

입출고대장을
다 맞춰놨겠지?
맞췄어요.

폭발사고와 관련해선
다른 기미가 없나?

한참 오라가라 들볶더니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아직두 내 뒤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직갱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이번 사건은 창고장인 내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나요.

그것들이 뭘 안다구 뾰족한 소리를 하면서 그래.
내 한번 죽탕을 쳐놓을테니 너무 신경쓰지 말라구.

그래두 어쩐지 마음이 불안해요. 꼭 누구인가가 날 살피는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신경과민이겠지.

이번 사고가 윤식 이의 자살행위라는걸 지금 누구나 다 인정 하는데 뭘 그래? 마음 푹 놓으라.
내 직업문젠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 넣어주 겠다던거 말이 예요.

진평회사 부사 장한테 부탁했으 니 조금만 기다 리라구.

지금 출장갔는데 돌아오면 만나겠대.

제
과장입니다.
과장동지, 비상사고입니다. 세계청년과학자토론회에 갔던 호성동무가 행방불명되였습니다.
행방불명?!

누굴
찾아
왔소?
항로동보호물자
공급소 송숙언니
를 찾아왔어요.
마침 있었군요.
언니!

언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예?
흑 흑
아니, 영애가?!
왜? 무슨 일이 생겼니?
호성동무가 …
호성동무가 행방 불명이래요.

뭐? 호성동무가?
그래요. 난 이젠 어
쩌면 좋아요?

난 영애가 날 친
언니처럼 따른다는
걸 잘 알아.

이웃으로서가 아니라 친언니로서 영
애를 도와주고싶은게 내 심정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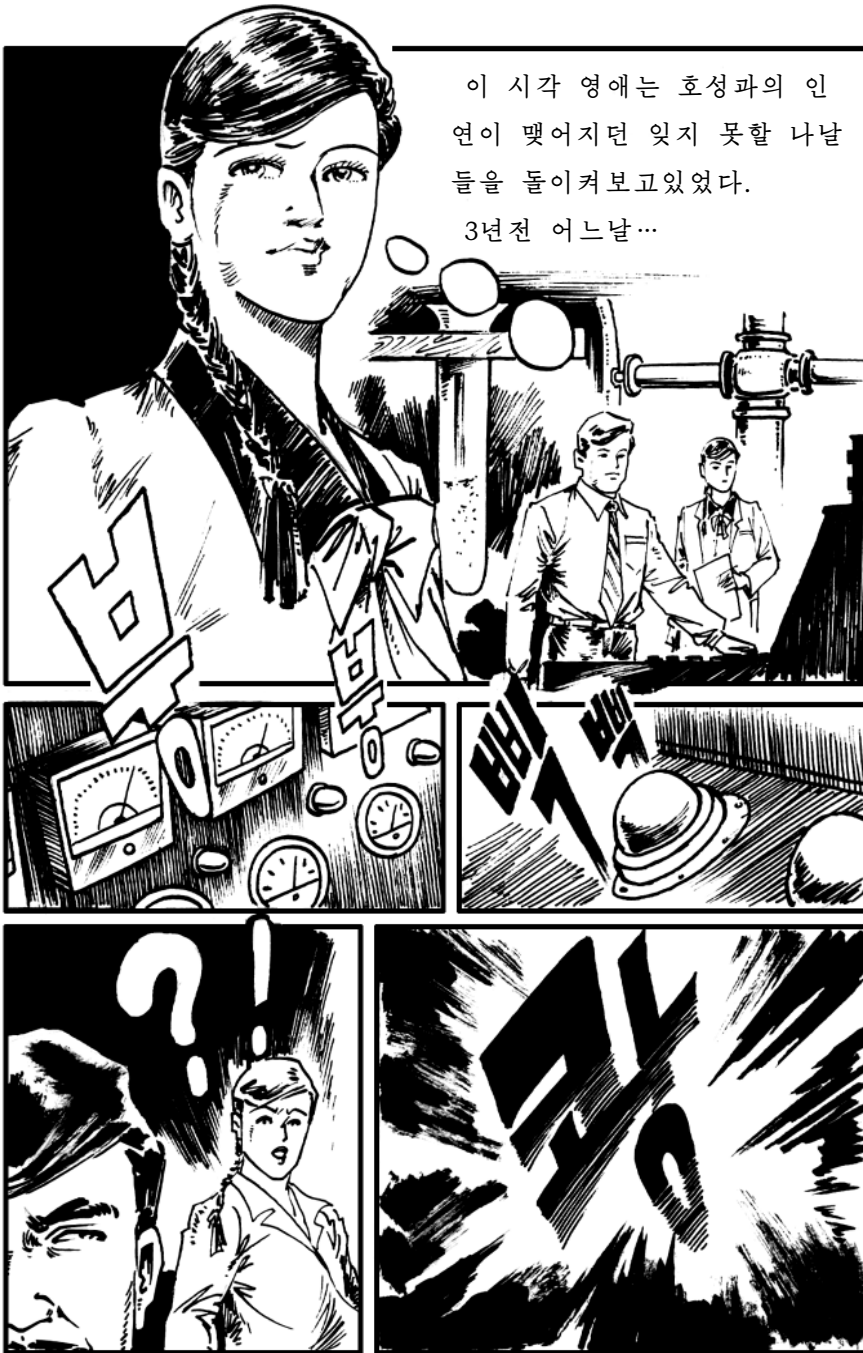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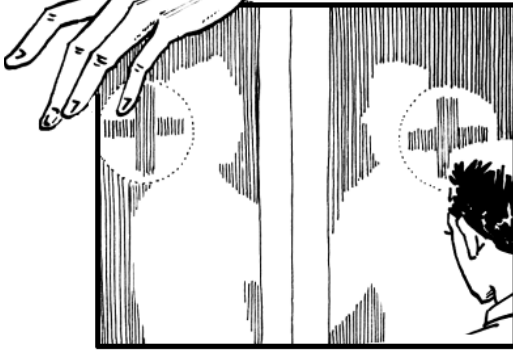
그러니 어찌된 일인지 자
세히 말해봐.

세계청년과학자토론회에 갔
던 호성동무가 갑자기 없어
졌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가요?
네? 언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흑…

영애, 난 호성동무를 믿어. 그는 절대로 딴길을 갈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되여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것이 해명되구 억울한 루명도 벗겨질 날이 꼭 올거야.
언니, 제발 좀 도와 주세요.

난 그전부터
소장선생과 잘
아는 사이야.
그럼 소장선생
한테 호성동무
를 보증해줄수
있겠지요? 예?
그야 물론.
언니,
정말 고
마와요.
자, 가자.
이렇게 늦었는
데 일없을가요?
아직 퇴근 안했을거야. 이런
문젠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져.

믿지 않구. 내 아까 말하지 않던. 소장선생이 내 도움을 많이 받았다구. 내 말을 꼭 믿을거야.

이 시각 영애는 호성과의 인연이 맺어지던 잊지 못할 나날들을 돌이켜보고있었다.
3년전 어느날…

호성의 연구사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온 영애였다.
하기에 그들은 청춘의 불같은 사랑과 열정을 안고 맡겨진 연구과제수행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였다.

호!..성..
언니, 어떻게 됐어요?
소장선생은 내 말을 듣더니 잘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해당기관과 련계하여 호성동무를 보증해주겠다고 하셨어.
언니, 정말 고마와요.

소장방
삐리릭

소장 전화받습니다.

내 담당부위원장이요. 소장동무, 동무넨 무슨 일을 그렇게 하오? 토론회에 갔던 호성이가 행방불명되였다면서?
예, 뜻밖의 사고입니다.
연구소사업에 문제가 있구만. 자료를 묶어가지구 당장 올라오오.
예, 예. 알겠습니다.

사 무 실
과장 동지.
방금전에 행방불명되였던 호성동무가 돌아왔답니다.
정말이요? 이제 그를 만나보겠소. 준비해주오.
알았습니다.
돌아왔단 말이지?!

다음날
과장동지, 절 믿어 주십시오.

전 이날이때까지…

우리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성장한 새 세대 청년과학자입니다.
첫걸음마를 떼던 탁아소시절부터 대학생활까지 제가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을 어찌 순간이나마 잊을수 있겠습니까.

전 절대로 당과 조국을 배반할 사람이 아닙니다.
호성동무, 진정하오. 누구도 동무를 의심하지 않소.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것만큼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를 알아야 할게 아니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나의 연구론문은 참가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모양입니다. 호텔과 식당, 공원, 심지어 거리에서까지 때없이 외국인들이 나를 만나겠다고 찾아왔으니까요.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조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저녁이였습니다.
저녁식사후 나는 호텔앞 공원에서 연구론문을 다시 보고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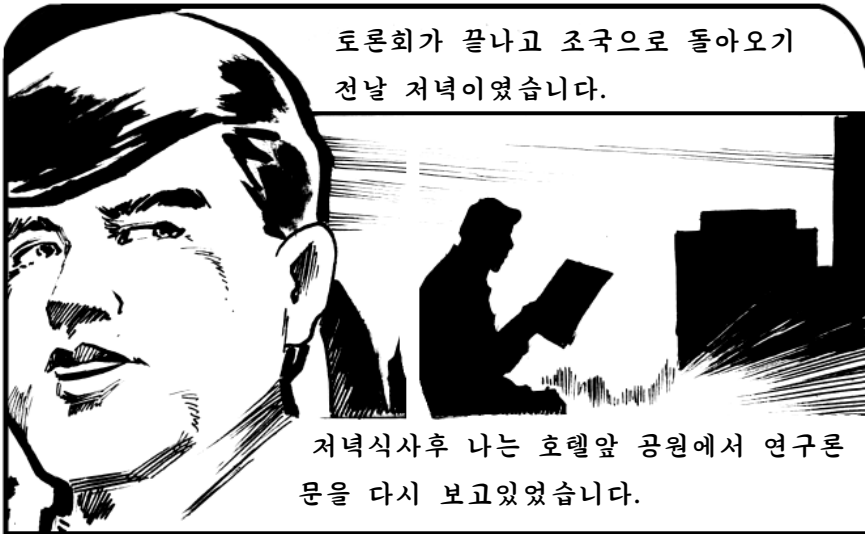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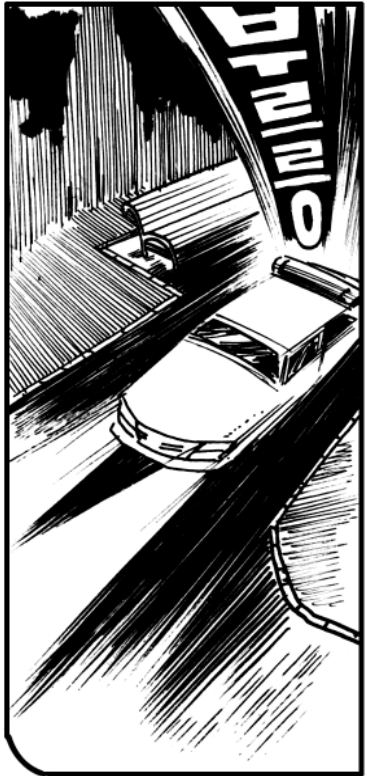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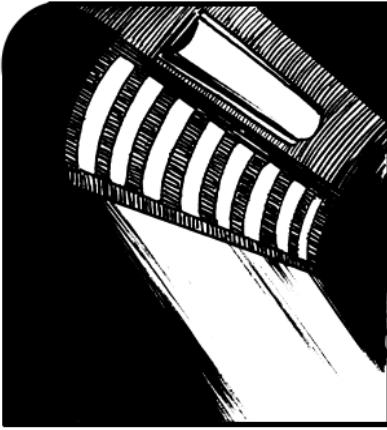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림호성선생이지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발표한 연구론문은 그야말로 대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은데 여기에다 수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딱
좋아, 빨리 !

가자 !

우리는 당신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면 모든 조건을 다 보장받게 될거예요.
호화로운 주택과 별장, 고급승용차, 유쾌한 관광려행과 아름다운 녀인들…

이건 선불금이예요.
당신나이 절반인 13만딸라.

당신의 연구론 문값으로 13만 딸라, 앞으로 또 26만딸라를 더 받게 돼요.

듣기 싫소. 나를 당장 돌려보내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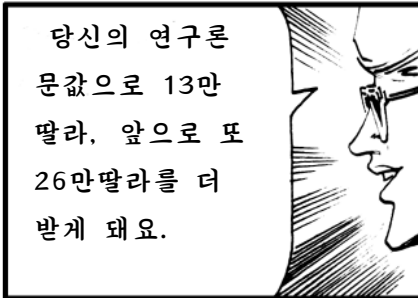
당신은 어린애같이 순진하군요.
당신이 돌아가게 되면 어떤 운명이 차례지겠는지 생각해봤어요?

흥, 난 떳떳하오.

떳떳
하다?

내 말 들어요.
첫째로, 당신은 이 연구론문을
우리에게 팔았어요.

이건 공원에서 당
신이 론문값으로 돈
을 받는 장면을 찍
은것이예요.

둘째로, 당신은 유흥
장들에서…
흥!

매춘부들과 어울려
춤도 추고 실컷 재미
를 보았어요.
이 사진들은 당신이
유흥장에서 즐기는
장면을 찍은거예요.

나는 지금 특수합금강을 연구하고있습니다.
이 연구가 성공되면 우리 나라가 금속공업부문에서는 물론 군사분야에서도 획기적전환이 일어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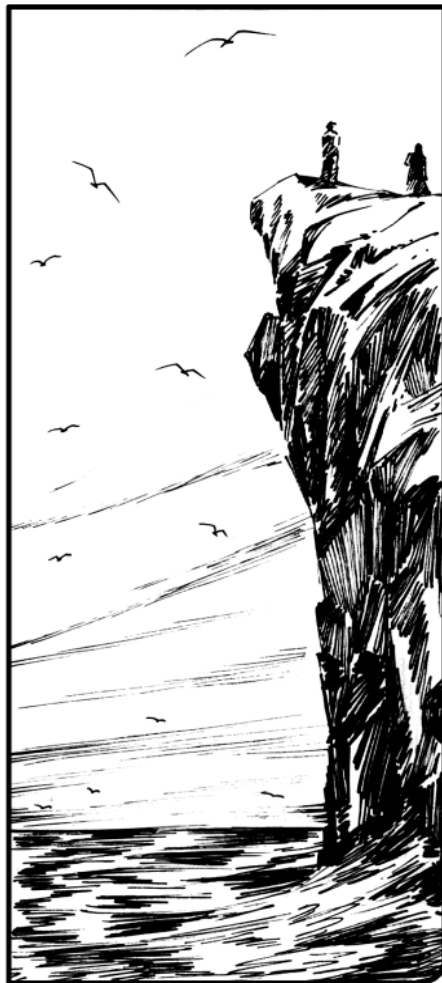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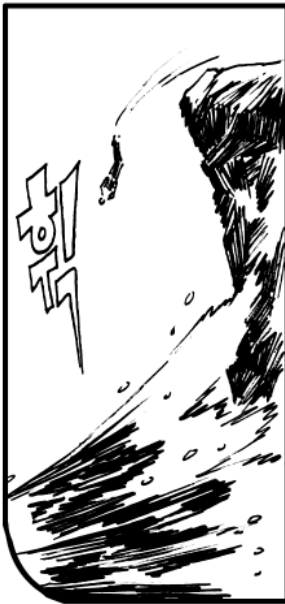
에잇
약
오호
아
음!

그래, 어떤가?
잘 먹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쏘가리》가 허술히 볼 놈이 아니라고 하더니… 정 말을 듣지 않으면 없애버려.

알겠어요.

끌어가오.

우리 손에 들어왔다가 살아서 빠져나간 놈은 없어. 우리의 요구에 응하든가, 아니면 바다귀신이 되든가 두 길중의 하나다.
휙
아
첨벙

전 바다가마을태생이기 때문에 헤염을 잘 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뛰여내렸습니다.

그후 륙지에 오른 나는 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대표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번 일은 대체로 이렇게 된겁니다.

동무의 말을 객관적으로 확증할 제3자가 없는것만큼 나는 동무를 믿겠소.

그러니 다른 생각 말고 안착해서 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하오.
고맙습니다, 과장동지.
그날밤
제2방안으로 넘어갈것.
《쏘가리》

제길,
왜 열리
지 않아?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
빼뚝
빼뚝
왱가당

누구얏
서라!
이놈!
딱
에익!
퍽
억
야앗
뻑

받아라!
딱
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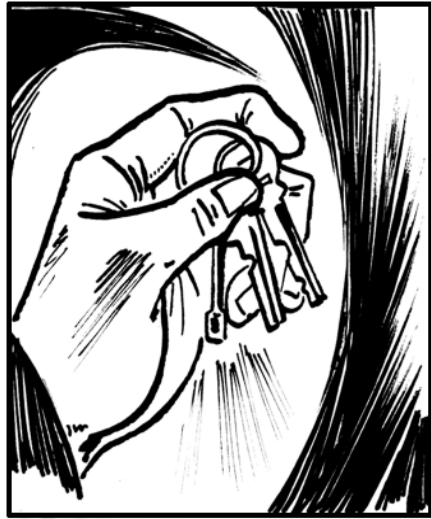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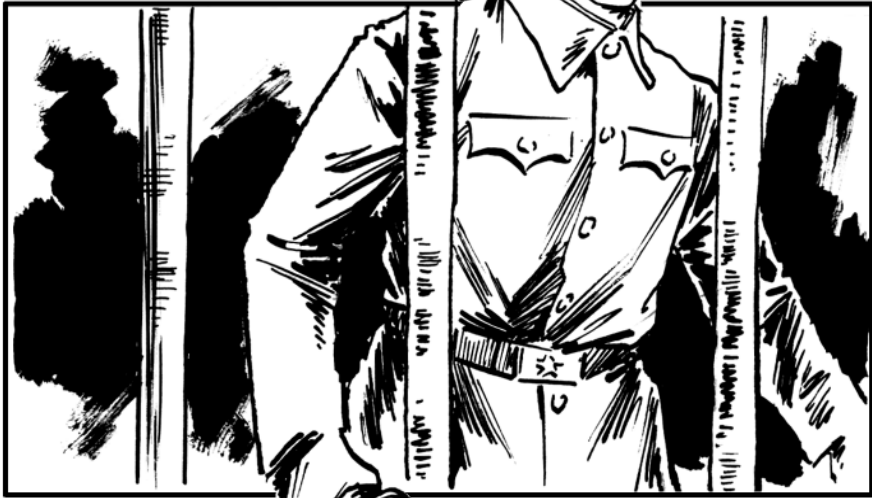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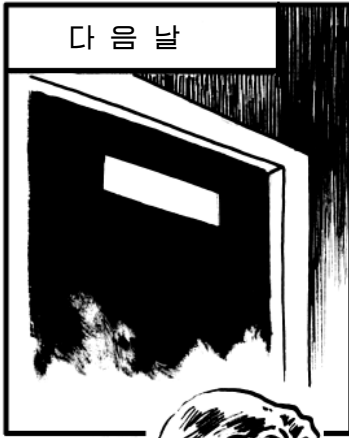
악

다른그락

다음날
과장동지, 어제밤 연구소 문서고를 습격하려던 범인의 흔적을 조사했습니다.
무슨 단서를 잡았소?
예.

이것 보십시오. 이건 범인의 신발 자리입니다.

음, 신발바닥에 패인 자리가 나있구만.

이 신발의 임자가 누구요?
림호성 입니다.
림호성?
그리구 어제밤 범죄자와 격투를 벌렸던 보위대원이 호성에 대해 신고를 해왔습니다.
열쇠…
격투현장에서 보위대원은 범인이 떨구고간 열쇠를 얻었는데…

그는 열쇠임자를 찾기 위해 연구소와 합숙의 방들을 그 열쇠로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호성이의 호실문이 열리더랍니다.
합숙관리원에게 알아보니 오늘아침 호성이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면서 관리원에게 보지 못했느냐고 묻더랍니다.
신발자리
열쇠
?
이 두가지 문제가 다 호성이와 련관되여있다면 그가 범인이라는 말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과장동지, 직일관 상위…

무슨 일이요?

알겠소. 면담실로 안내하시오.

은하연구소 소장동지가 찾아왔습니다.

면 담 실
소장선생이 어떻게 여기
까지 오셨습니까?
전 생각하
던 끝에…

호성동무를 특수합금강연구에서
손을 떼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
니다.

리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의 행불사건은 많
은 의심을 던져주고있습니다.
그런데다 보위대에서 제기된데 의
하면 어제밤 문서고습격사건의 혐의
자가 또 호성이라니…

지금 사람들속에서는 호성이에 대한 뒤소리가 많이 돌아가고있습니다.
윤식이와 함께 밀려다니다가 갑자기 그를 폭로한것도 의심스럽다느니…
특히 최근에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뭘 하는지 모르겠다느니 하면서…
그러니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우리 연구소로 말하면 중요한 비밀이 많은 기관이 아닙니까.
만약경우를 생각해서 호성동무를 돌려놓자는겁니다.
돌린다면 어디로 돌리겠습니까?
수직갱공사장에 로력이 딸리는것만큼 로력동원대상에 넣어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소장선생의 사업에 참견하는건 아니지만 한 과학자의 운명문제인것만큼 좀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 구 소 소 장 방
소장동지,
절 불렀습
니까?

호성동무, 동무는 래일부터
수직갱공사에 동원되여야겠소.

소장동지,
이건?!…

여러모로 토론한 끝에 결론한
문제이니 그대로 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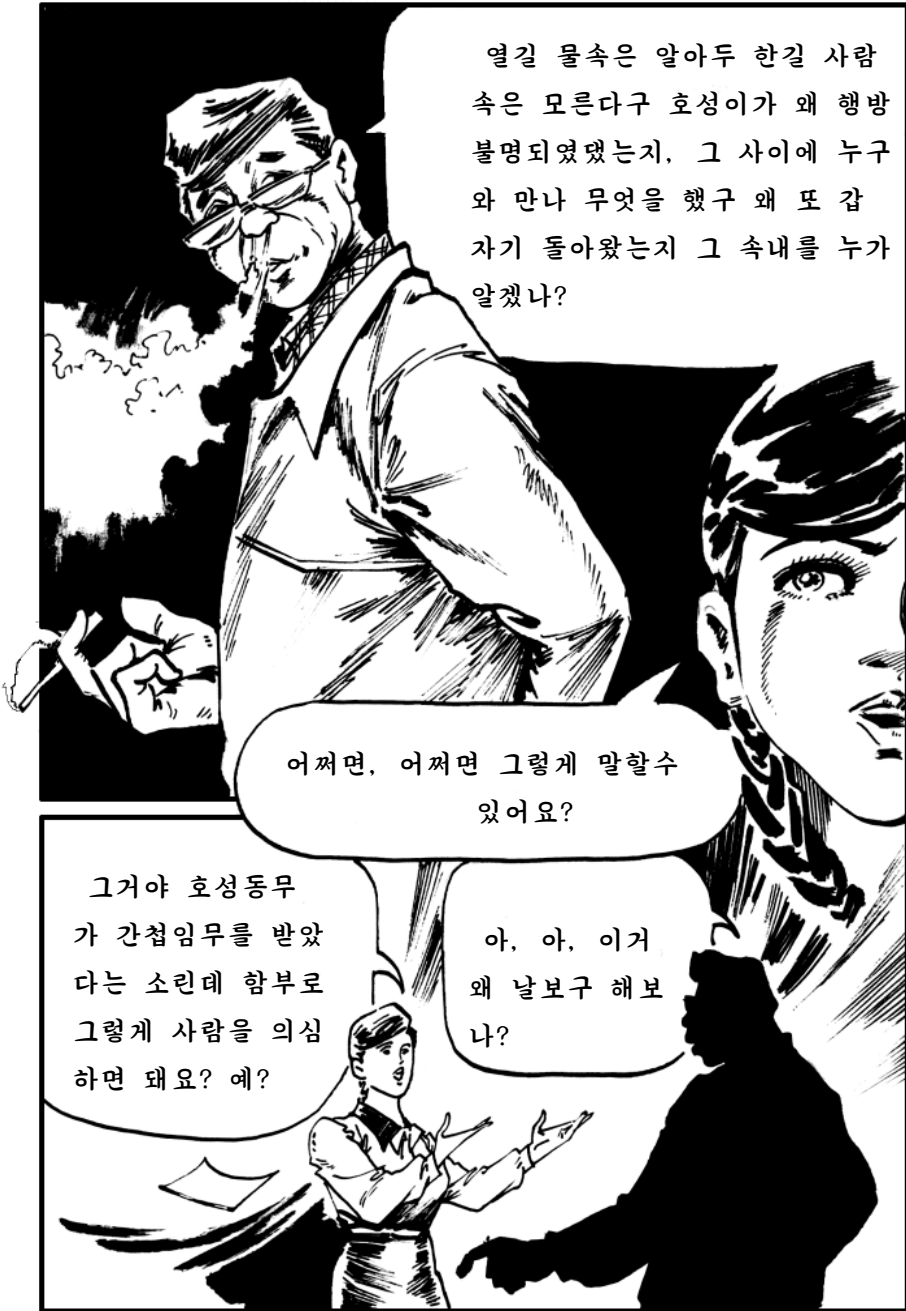
한 편

영애, 어딜 가나?
아이, 깜짝이야.

자재과장동지군요.
호성이한테 가나?

예, 실험결과를 알려주려구요. 오늘 실험결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호성동무를 축하해주려구…
아, 그래? 헌데 호성이한텐 그것이 필요없게 됐네.
그… 그건 무슨 소리예요?
듣자니 오늘부터 연구사업을 그만두고 수직갱공사장에 가서 일하게 됐다누만.
뭐라구요? 연구사업을 그만두다니요? 그게 정말이예요?

호성이가 행방불명되였던게 문제시되는 모양이야. 들리는 말엔 이번 문서고습격사건두…
호성이가 제일 유력한 혐의자래.
혐의자라니요? 그건 무슨 말이예요?
호성이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말 못들었나?
들었어요. 나보구 열쇠를 못봤느냐고 묻더군요. 그게 어쨌다는거예요?
그 열쇠가 사건현장에 떨어져있었다는거야.
예?
뭐, 꼭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사람일이란 장담못해.

열길 물속은 알아두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구 호성이가 왜 행방 불명되였댔는지, 그 사이에 누구와 만나 무엇을 했구 왜 또 갑자기 돌아왔는지 그 속내를 누가 알겠나?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 말할수 있어요?
그거야 호성동무가 간첩임무를 받았다는 소린데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면 돼요? 예?
아, 아, 이거 왜 날보구 해보나?

난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걸 그대로 옮겼을뿐인데 영애와 호성이사이가 보통사이가 아니라는걸 알기때문에 영애한테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 영애두 정신차리라구.
음, 음, 어험, 어험.
이게 어찌된 일이예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호성동무를 만나야 해!
그날밤
흐응
호성 동무,
이게 웬일이예요?
흐-
아, 영애동무요?
껄…
지내 마셨군요. 어디서 이렇게 마셨어요?
이렇게 추한 꼴을 보여서 미안하오.

내 하두 속상해서 술 한병을 다 마셨소.

세상만사란 다 눈감구 아웅이야. 그런걸 이 어리석은 놈은 날 진짜 믿어주는줄 알았지.

영애동무, 동무보기에도 내가 간첩같아보이오?

무슨 소릴 하는거예요?
누가 동무보구 간첩이라고 해요?

왜
믿지 못하는가?
그건 내가 행방불명되였다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요.
그렇다 해두 자기의 결백성을 증명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술이나 마시구 주정이나 한다구 해결돼요?
뭐야?
어떻게?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이겠소?

행방불명사건두 나 혼자만이 알고있는 일이요. 연구소 문서고습격사건이 있은 날에두 나 혼자 버럭더미에서 시료채취를 했으니 내가 범죄자가 아니란걸 누가 증명하겠소?

그런데 열쇠는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영애동무도 그걸 물어보누만. 벌써 여섯번짼가, 일곱번짼가 반복되는 질문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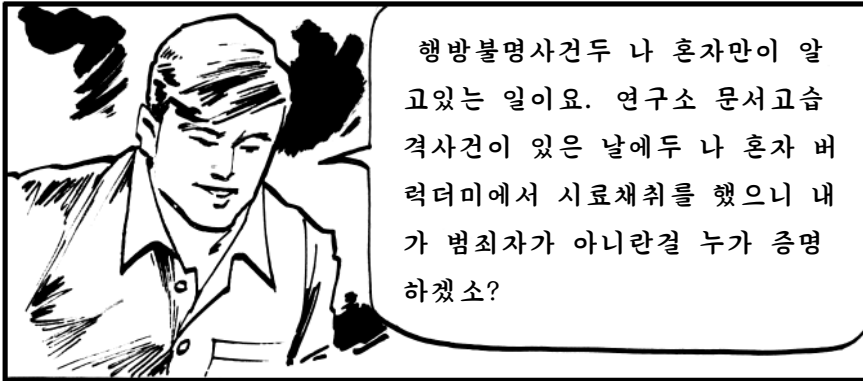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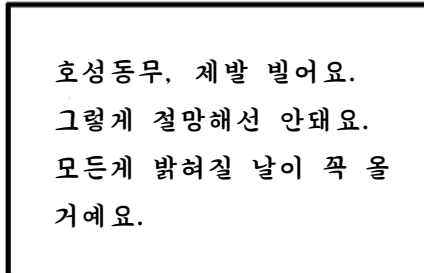
나를 도와주기 위해 묻는다면 얼마나 고맙겠소? 그 질문속에도 그날밤 문서고를 습격하다가…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비껴있단 말이요.

그럼 어째서 그 열쇠가 사건현장에 떨어져있었어요?
어떤 놈이 열쇠를 훔쳐다 우정 거기에 떨구어놓았겠지.

우리 함께 소장동지를 찾아가 우리 생각을 말씀드리자요.

필요없소. 3자의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한 변명해야 필요없단 말이요.

호성동무, 제발 빌어요. 그렇게 절망해선 안돼요. 모든게 밝혀질 날이 꼭 올거예요.

아니, 내 인생은 끌장이요.
동무도 내게 미련을 가지지 말라구.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오.
예?
그리구… 난 동무를 사랑하지 않소. 그러니 단념하오.
어쩌면 그런 말까지?!…

동문 너무해요.
호성동무!

수직갱공사장

그러다 감기들겠네.
?
싫소. 도로 가져가오.

왜? 비를 맞는게 소원인가?

내겐 그런 동정이 필요없수다.
고집부리지 말구 어서 받으라구.

이건 동정이 아니라 로동안전 규정이야.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거요?

광산에서 온 순보아바이일세.

연구소사람은 아니지만 년장자로서 그쯤한 훈시야 못하겠나? 그러니 어서 받으라구.
모든게 다 귀찮수다.

지금 호성의 가슴속에서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대한 반발심과 노여움, 변명할길 없는 처지로부터의 좌절감과 절망감이 뒤엉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었다.

그렇다고 어디에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왜 연구사선생, 연구사선생 하면서 그러우? 난 연구사가 아니란 말이요.

괜히 짜증내면서 그러네.

그래두 자길 생각해서 우정 술 한병을 가져왔는데…
뭐, 술? 그게 어디 있소?
여기 있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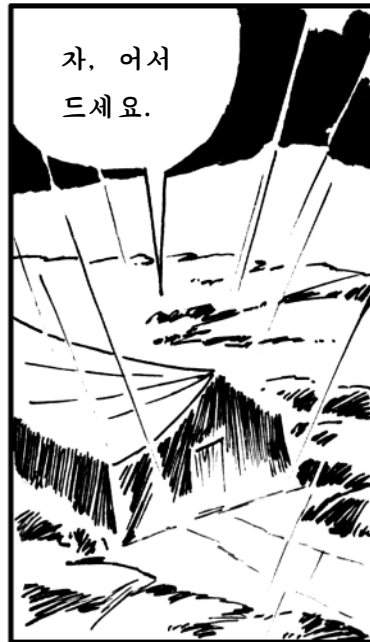
자, 어서 주우.
여기선 안돼요.
부소장동지가 보면 안돼요.
저기 조용한 곳으로 가요.

어서 들어가오.

자리가 루추해서 미안하구만.

자, 어서 드세요.

아이, 별 말씀을 다…

남들은 이러구저러구 뒤
소리가 많지만 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허, 이젠 은옥동무
한테서까지 동정을
사게 됐으니 내 인
생은 다된셈이지.
술이 내 친구야. 술을
마셔야 속이 풀리거든.
25%
차라리 다른 직장으
로 옮기지 않겠어요?
그 좋은 재간을 이런
수직갱에서 썩이는거
야 너무하지 않나요?

글쎄… 그런 생
각을 안해본건
아니요.
하지만
내가 하던 특수합금강연
구를 꼭 성공시키구싶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거지.

연구소 뒤길
호성이상태는?

흥, 자기한텐 술밖에 친구가 없다는걸 보니 타락한것만은 사실이예요.
하지만…

연구를 완전히 포기 하지는 않았더군요.
뭐?

그건 무슨 소리야?

내가 직장을 옮기지 않겠냐고 떠봤더니 특수합금강연구를 꼭 성공시키구싶다구 대답하더군요.
흠… 그렇단 말이지?
호성이한텐 왜 그리 눈독을 들이면서 그래요?
그건 알 필요가 없어. 넌 그저 시키는 일이나 잘하란 말이야.

난 불안해서 더는 이
렇게 못살겠어요.
이젠 날 놔줘요.
허튼소리 말아!
그동안 네가 먹은 돈이 얼만지 알
아? 그게 뭐 공짜줄 알았어?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았다간
알지?

됐어요.

나도 당신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걸 잘 알아요.

내가 로처녀소리를 들으면서두 시집가지 않는것도 다 생각이 있기때문이예요.
내 이미 말하지 않았어? 돈을 벌어가지구 해외로 빠지는게 상책이라구.
그러자면 진평회사 부사장 그놈을 낚아야 해.